

## 우리들의 모습



5월 11일(주일) 원주교구 배론성지에서 2025년 예비신학생 성소주일 행사가 있었습니다. 40여 명의 예비신학생과 부모님, 신학생들이 성지에 모여 함께 미사를 봉헌하고 미션을 진행하였습니다. 배론성지는 한국 최초의 신학교가 있었고, 한국의 두 번째 사제인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의 묘소가 위치한 곳이라 순례가 더욱 뜻 깊었습니다. 땀의 순교자이신 최양업 신부님의 생애를 알아가면서 우리도 부르심에 충실히 응답하는 예비신학생들이 되기를 다짐했습니다.

## 영명축일 축하합니다!

- 6월 22일 마르첼리노  
예비신학생 - 김승기 (용상동, 고2)
- 6월 24일 세례자 요한  
예비신학생 - 진한얼 (봉화, 고2)
- 6월 29일 바오로  
예비신학생 - 최준영 (강구, 고3)

## 예비신학생 기본교리



### 견진성사 받았어요?

예신생 친구들은 모두 세례성사를 받았지요? 그래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혹시 견진성사를 받은 친구들도 있지요? 아직 안 받은 친구들도 있을테고요. 세례성사로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견진성사를 통해 신앙이 좀 더 성숙해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만 12세 이상이 되면 견진성사를 받을 수 있어요. 바로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질 수 있을 만큼 성장했다는 뜻이겠죠.

'견진'이라는 말은 '단단하게 한다'는 뜻으로, 세례 때 지녔던 신앙을 더욱 굳건하게 한다는 의미겠네요. 또한 견진성사는 '성령의 성사'라고도 해요. 세례 때 받은 신앙을 성령께서 더욱 굳건하고 성숙하게 해 주시기 때문이지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힘들어할 때마다 힘과 용기를 주시고 하느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도록 우리 곁에서 도와 주십니다.

세례는 일반적으로 신부님이 집전하시지만, 견진성사는 주교님이 본당을 방문해서 집전하시거나, 우리 교구에서는 청소년들을 따로 모아서 일정 교육을 한 다음 집전하기도 합니다.

주교님은 견진성사 때 견진자의 이마에 '크리스마' 성유를 바르면서 "( )은 성령 특은의 날인을 받으시오!"라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교회에 속하고, 일생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겠다는 의미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예신생 친구들도 견진성사를 통해 한층 더 굳건한 신앙인으로 성장했음을 꼭 기억하도록 해요~!

### 기억해요!

#### 1. 예비신학생 6월 모임

- 일 시 : 6월 15일(주일) 15:00
- 장 소 : 진안리성지

\* 이번 6월 모임에서는 최양업 신부님 시복시성 기원 미사를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2025년 6월

## 예비신학생 편지



<2025년 예비신학생 성소주일 행사 - 배론성지>



천주교안동교구 사목국 성소담당

[https://www.instagram.com/andongcatholic\\_](https://www.instagram.com/andongcatholic_)  
안동교구 예비신학생 인스타그램

## 예신생과 나누는 'Joungul'

- “교회는 성소자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

지난 5월 8일,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뒤를 이어서 제 267대 교황님으로 레오 14세 교황님께서 선출 되셨습니다. 그리고 교황으로서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이 바로 부활 제4주일, '성소주일'이었지요.

교황님은 예수님께서 “당신 양들을 알고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참된 목자로서 드러 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느님의 온 백성이 성소자들 위해, 특히 사제 생활과 수도 생활에 부르심받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자고 했지요: “교회는 성소자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젊은 남성과 여성들이 성소 여정에서 환대와 경청, 격려를 받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너그럽게 헌신하는 신뢰할 만한 모델들에게 기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레오 14세 교황님은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목자”가 되도록 서로를 위해 일치된 마음으로 하느님께 기도를 바치자고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각자 자신의 신분에 맞게 ‘하느님 마음에 드는’ 목자가 되어, 사랑과 진리 안에 걸을 수 있게 도와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젊은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교회와 주 그리스도의 초대를 받아들이십시오!’”

새 교황님을 위하여 기도드리면서, 각자 자신의 성소에 기쁜 마음으로 응답하는 예신생이 되길 바라요~!



Leo P.P. XIV

제267대 교황 레오 14세

## 신학생으로부터~



안동교구 예비신학생 친구들, 오랜만이에요! 학부 2학년 김윤성 바실리오 신학생이에요.

올해는 일교차도 크고 날씨도 일찍부터 더워져서 다들 많이 지쳐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때일수록 여름방학의 휴식이 더욱 그리워지기 마련이죠. 사실 저는 6월이 되며 벌써 여름방학을 맞이했습니다. 부럽나요?

‘방학’이라 하면 그동안 지친 몸을 쉬게 하고, 하고 싶지만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해나가는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듯해요. 못 잤던 잠을 몰아서 자거나, 아껴두었던 드라마를 정주행하는 그런 모습 말이죠.

제가 생각하는 방학의 가장 큰 의미는 ‘경험’과 ‘자기계발’이에요.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일을 경험하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품고 있는 많은 사람을 만나보고,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나의 부족한 점을 차근차근 채워가는 시간이 바로 방학인 거죠.

친구들은 아직 여름방학까지 시간이 조금 남았죠? 어떻게 하면 이번 여름방학을 더 알차게 보낼 수 있을지, 새롭게 도전해보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쉬는 일마저 무료해지면 방학이 오히려 지루해지니까요.

다들 남은 방학까지 조금만 더 힘내요! 예신생 모임 때 또 만나요~

주교좌 목성동 본당, 학부2  
김윤성 바실리오 신학생

## 난 도리 - 백종현 페르디난도



‘기도는 항상, 늘, 언제나...’